



대표이사 이현태 사장

現代石油化學

소재지 : 충남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679

전 화 : (0455)61-2114(代)



I. 기업현황

現代石油化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창조적 예지와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건설·자동차·중공업 각 분야에서 공업 한국의 위상을 정립시켜 온 現代그룹의 일원으로서 국내·외 석유화학 관련업계에 우수한 품질의 석유화학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88년 9월에 설립되었다.

1991년 10월 4일 준공한 現代石油化學 大산단지

충남 서산군 대산읍의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117만 5천 평의 광활한 터 위에 나프타 분해센터를 비롯한 여덟 개의 계열 석유화학 공장들이 1단계 사업으로서 45만평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밀화학과 신소재, 나프타 지급을 위한 정유 공장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만 내려지면 곧 착수될 것이다.

또한, 단지내에 전력과 스팀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시설과 최대 10만 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

만, 1천 5백명 이상의 임직원을 수용하는 사원 주택과 기숙사도 완비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중공업 등 現代그룹 전분야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비를 최소화한 大山단지는 나프타 분해센터와 계열공장들의 일괄생산체제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단지내의 전 공장과 유틸리티 설비들을 분산제어시스템(DCS) 및 선진제어시스템(ACS)으로 구축하여 공장제반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컴퓨터에 의해 완전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물류·인사·재무관리 등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회사 전체의 운영을 컴퓨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大山단지 배후에 국내 주 소비시장인 경인공업권이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시장확보와 수송비 절감에 유리하며,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북방교역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이제 새로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現代石油化學! 「한마음 365일 목표달성 130%」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풍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첨단 기업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힘찬 행진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II. 사업 부문별 현황

현대석유화학의 사업부문은 나프타 분해사업, 합성수지사업, 중간원료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프타 분해 사업〉

現代石油化學의 나프타 분해사업은 에틸렌, 프로필렌, C₄유분을 생산하는 올레핀 공장과 벤젠을 생산하는 벤젠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KELLOG社와 프랑스의 IFP社의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국내 수급 안정과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합성수지 사업〉

합성수지 사업은 에틸렌을 중합반응시켜 생산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공장,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공장,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과 프로필렌을 중합반응시키는 폴리프로필렌(PP)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現代石油化學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들은 밀도·용융지수·분자량분포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격으로 생산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다.

〈중간원료 사업〉

중간원료 사업은 부타디엔 공장과 스티렌모노머 공장 및 에틸렌글리콜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장들은 나프타분해공장에서 생산된 에틸렌, 벤젠, 혼합 C₄ 유분 등을 전량 자체 조달로 하여 전자, 자동차, 합성섬유, 타이어 산업들의 필수소재의 원료인 부타디엔, 스티렌 모노머, 에틸렌글리콜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관련사업의 발달에도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석유화학 생산 계통도〉

		생산제품	생산규모 (톤/年)
나프타 (110만톤/年)	나프타 분해 공장	에틸렌 (35만톤/年)	低密度 폴리에틸렌 100,000
			線形低密度 폴리에틸렌 60,000
			高密度 폴리에틸렌 100,000
			에틸렌글리콜 100,000
		프로필렌 (17만톤/年)	폴리프로필렌 170,000
	C ₄ 混合物 (12만톤/年)		부타디엔 57,000
		벤젠 (14만톤/年)	스티렌모노머 100,000

III. 연구개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現代石油化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제이다.

大山단지 내에 위치한 現代石油化學(주) 부설연구소에서는 “부단한 기술적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한다.”는 이념아래 기초원료에서 고분자 신소재, 정밀화학제품, 중합용 촉매 및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르기까지 現代石油化學이 지닌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회적 요구에 부응시키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조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가공연구부, 신제품개발부, 촉매개발부로 구성되며, 동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인원은 박사 10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신제품·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가공연구부에서는 당사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품질 안정화 및 다변화와 당사제품에 적합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공업체에 기술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신제품개발부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전선용에 적합한 복합수지 및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광분해성 수지등 고성능·고기능성이 부여된 수지개발과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기초로서 Rubber, Enpla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촉매개발부에서는 중합 및 촉매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여, 당사에서 사용중인 Cr계 촉매 및 Ziegler-Natta 촉매를 개량·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Pilot 및 Plant에 직접 응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現代石油化學은 최대한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제품을 다변화, 고급화, 차별화 시킴으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책임있는 첨단기업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IV. 회사개요

—대 표 이 사 : 이현태

—자 본 금 : 3448억원

—종 업 원 : 1800명

—서울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12층

—본사(공장) : 충남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679

—해 외 지 사 :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회 사 연 혁 :

1988. 9 현대석유화학(주) 설립

1988. 11 공정 기술 도입

나프타 분해, C3, RPG, C4 수첨 공정 기술

1990. 1 중간원료(에틸렌글리콜, 부타디엔, 스티렌 모노머) 공정기술

합성수지(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공정기술

1990. 6 현대석유화학 부설연구소 설립

1991. 6 국내 지점(부산, 대구, 대전) 설치

1991. 7 해외 지점(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설치

1991. 7 각 단위 공장 시운전 개시

1991. 10 현대석유화학 컴플렉스 준공